

“경로식당 건강한상차림 우리가 책임집니다”



강진군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의 조리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역량강화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강진군 경로식당 조리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퓨전음식 체험 좋은 기회...메뉴 개발에도 도움”

관내 경로식당은 강진노인대학, 읍·면 경로식당 등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상차림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뉴개발을 위한 퓨전음식 체험은 강진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개업한 '요리노리' 진현정 대표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출장뷔페의 형식으로 연어샐러드, 오이초밥 등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을 체험했다. 이 밖에도 복지현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영양살롱'의 이민선 선생님과 함께 쿼트가방을 만들었고 대구상차마을 도자기연구소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만든 다육이 도자기 화분으로 원예 체험을 했다.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한 조리사는 “특히 퓨전음식 체험은 경험해보

지 못했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메뉴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승옥 군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더 좋은 식단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리 전문가로서 능동적으로 요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경로식당 급식의 맛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

159억원 7천만원...지난해 98억원 보다 62% 증가

진도군이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난 23일부터 지급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태풍·장마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급했다. 올해 직불금은 159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98억원보다 62%로 증가했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5,320농가를 확정했으며,

3,022농가에게 면적직불금 132억원, 2,299농가에게 소농직불금 27억을 지급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태풍, 병충해 등 자연 재해와 코로나 19로 인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다”며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 쌀·전복 미국 수출길 오른다

농수산물 21개 품목...올해 미국 울타리 USA에 총 35만 불 수출

완도군은 25일 농공단지 일원에서 지난해 미국 LA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을 맺었던 울타리 USA에 완도 쌀과 냉동 전복, 전복 가공품, 김, 미역, 다시마, 해초 샐러드 등 21개 품목(1억 원 상당)이다. 선적식에는 봉진문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미국 울타리 USA 신상군 대표,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완도군 수출 기업인 다시마전복영어조합 법인 양희문 대표, 홍일식품 김도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울타리 USA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연 매출이 70억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로 우리나라의 특산물 생산자와 직접 계약 후 특산물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23개 지자체의 45개 업체, 420

여 개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홍보·판촉 행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완도 수산물 미국 울타리USA 온라인 판촉전'에 완도군 3개 기업(다시마전복수산, 홍일식품, 세계로 수산)이 참가하여 3만 6천 불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해 동안 미국 울타리 USA에 35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2019 미국 시장개척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상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기동취재본부

‘완도로 랜선 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완도군은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 ‘완도 랜선 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완도군과 관련된 창작 영상물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청정바다 완도 랜선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공모 분야는 완도와 관련된 여행 스토리, 문화·관광 자원 등 완도의 다양한 매력을 참신하고 감각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본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후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 고시공고의 ‘완도 랜선여행’ 유튜브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이메일(mondlicht@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산림청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시범사업 선정

해남군이 산림청 주관 2021년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신상품 재배단지를 조성한 후 시군에서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남군과 세종시가 선정됐다. 사업비 25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배지 표고버섯, 두릅·읍나무 등 고부가가치 산림신상품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산림분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예정지는 현산면 구시리 일원 5ha 국유림으로 2022년까지 관리동, 재배온실, 작업동, 포지 등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중심이 되는 임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생산·판매 등 운영 권한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흡연과 음주 예방’ 조기교육

대덕초등학교 외 22개교 863명 대상 실시



장흥군은 지난 10월부터 대덕초등학교 외 22개교 863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흡연의 위험성과 심각성, 음주폐해에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풍선 및 비눗방울 퍼포먼스에 접목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됐다. 군은 마술 및 동화를 통한 흡연·음주예방 교육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화공연 관람 및 체험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어린이와 교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동시에 예방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라며 “흥미를 유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조기흡연율을 낮추고, 학생들이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알리는 건강생활실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